

 금융위원회	보 도 반 박				 한국판뉴딜 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21.12.15.(수)	

책 임 자	금융위 금융혁신과장 박 주 영(02-2100-2530)	담 당 자	박 정 원 서기관 (02-2100-2533) 김 민 하 사무관 (02-2100-2531)
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

제 목 : 금일 간담회 관련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. **[뉴스1 12.15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]**

1. 기사내용

- ☐ 뉴스1은 12.15일자 「[기자의눈] 소통한다면서 ‘민원은 자제’ 하라는 금융위」 제하 기사에서
- “민원 발언은 자제해 달라”
 - “일부 회사에 ‘건의 사항을 자제해달라’, ‘금융위에 감사한 점을 포함해달라’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. ‘사전에 제출한 내용 외에는 말하지 말라’고 입단속까지 했다고 한다”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- ☐ 상기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- 금일 ‘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’는 금융플랫폼 기업, 금융회사, 유관기관과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 등 향후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행사로,
 - 이날 참석자들은 신기술 적용·데이터 활용 등을 위한 규제 개선, 인프라 구축 등 금융회사 등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, 자유롭게 토론이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.